#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3.30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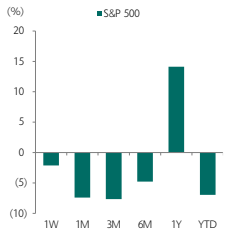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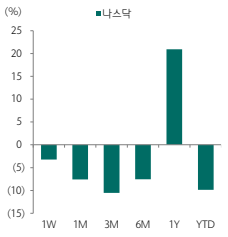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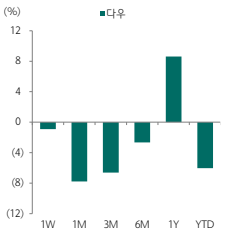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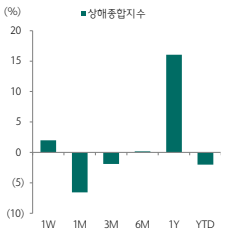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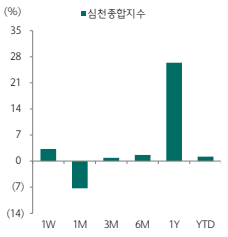
## 터보퀀트로 인한 메모리 수요 악화 우려는 과하다

**펀더멘털 훼손으로 과잉 해석 금물: 현재 투자 및 수요가 강력한 상황에선 추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관점**

- 구글의 '터보퀀트' 기술이 본격 실용화되면 AI 추론 메모리 사용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 메모리 수요를 구조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하다. 터보퀀트 논문은 2025년 4월에 공개됐고, 2026년 3월 24일 Google Research 공식 블로그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다(TurboQuant: Redefining AI efficiency with extreme compression). 메모리 및 스토리지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으나, 펀더멘털 훼손으로 해석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투자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아마존 등)의 CY 2026 자본지출 컨센서스는 연초 5,131억 달러에서 6,415억 달러로 상향됐다(FactSet 기준). 엔비디아도 블랙웰과 베라루빈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매출 기회를 언급했다. 인공지능이 디지털 세계를 넘어 물리적 세계로 확장될 것을 시사한 것이다. 물리적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수요 파괴보단 AI 추론 스택의 경제성을 높이는 기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터보퀀트가 압축하는 대상은 메모리 전체가 아닌 추론 과정에서 누적되는 KV cache 및 벡터 표현의 일부다.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터보퀀트가 KV cache 메모리를 최소 6배 줄이고, 3-bit 수준까지 양자화하며, H100 기준 Attention-Logit(이전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볼 것인가 정하기 위한 원점수) 계산에서 최대 8배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 전체 메모리 수요를 U(터보퀀트 영향이 거의 없는 부문: 학습, 모델 가중치 저장, 기타 등)+K(터보퀀트가 직접 줄이는 KV 관련 부문)라고 하면 터보퀀트가 본격화(U + K/6)된 후 총 수요 감소율은 1-(U + K/6)/(U + K) = (K/(U+K)) * (1-1/6)다. 0.833 * (K/(U+K))로 풀 수 있다. K/(U+K)는 터보퀀트가 직접 겨냥하는 부문의 비중이다. KV 관련 비중이 10%면 총수요 감소는 8.3%, 30%면 25%, 50%면 41.7%가 된다. KV가 전체 메모리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차지하지 않는 한 메모리 수요 붕괴라는 해석은 과하다.
- 엔비디아는 FP16 기준으로 Llama 2 7B 모델의 weights가 약 14GB인데, KV cache가 2GB라고 설명했다. 총 16GB 중 KV 비중은 12.5%고, 터보퀀트로 KV만 6배 줄면 총 메모리는 16GB에서 14.33GB가 된다. 약 10.4%가 줄어든 것이다. KV 메모리는 크게 줄었지만 전체 메모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컨텍스트 길이가 8배 늘어나면 KV는 16GB가 된다. 총 메모리는 14GB(weight) + 16GB(KV) = 30GB다.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16.7GB로 총 메모리 절감률이 44.4%가 된다. 메모리 수요 붕괴보단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효율성 개선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 터보퀀트의 핵심은 원본을 완벽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유지하면서 저장 비용(자원)을 줄이는 데 있다. 언어모델은 확률적 예측을 수행한다. 터보퀀트는 모든 값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지 않아도 추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1단계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좋게 만든다(PolarQuant). 데이터 벡터를 무작위로 회전시켜 가공하기 좋게 재구성한다. AI가 만드는 데이터들은 편중된 경향이 있어 가공하기가 어렵다. 무작위 회전을 통해 핵심 정보가 특정 차원에 몰리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게 한다. 이후 이를 양자화하는 데, 아주 정밀하고 복잡한 연속적인 데이터를 단순하고 듬성듬성한 불연속적인 데이터로 요약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QJL로 1비트를 활용해 미세 오류와 편향을 제거하는 것이다. 벡터의 정밀 복원이 아닌 다른 벡터와 얼마나 비슷한가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남기는 것이다.

- 터보퀀트를 직관적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원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원주율(π)를 3.14로 써도 대부분의 계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와 비슷하다. 나머지 숫자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전체 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주율을 3.14로 사용한다. 터보퀀트 1단계에선 핵심 정보를 3.14처럼 짧은 표현으로 압축해 저장하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는 데 버려지는 정보로 인한 오차(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요약한다. 2단계에선 요약본(3.14)을 만들고 남은 나머지를 1비트의 힌트(1-bit QJL 보정 정보)를 추가한다. 나중에 점수를 계산할 때 보정치를 제공해 원본 데이터와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다.

**주요 지수 및 수익률**

| 지수 | S&P 500 | NASDAQ | Dow | 상해종합지수 | 심천종합지수 |
|---|---|---|---|---|---|
| 종가 | 6,368.9 | 20,948.4 | 45,166.6 | 3,889.4 | 2,561.4 |
| 1W (%) | -2.1 | -3.2 | -0.9 | 2.0 | 3.3 |
| |  |  |  |  |  |











주) 3월 27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 지난 주(3월 23일~3월 27일) 리뷰: 지정학적 위기가 자극한 통화정책 불안

- 미국증시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증시 3대지수의 수익률은 다우 -0.9%, S&P 500 -2.1%, 나스닥 종합지수 -3.2%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지수는 0.5% 상승했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0.6% 하락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참여자들은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선호했다. 성장주 ETF(VUG)와 가치주 ETF(VTV) 모두 하락했으나, 성장주 ETF의 하락폭이 더 컸다(VUG -4.1%, VTV -0.6%). 변동성 지수(VIX)는 15.9% 상승하며 31.05로 마감했다.
-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등이다.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6.43%로 발표됐다. 2월 발표치(6.09%)이후 계속 오르고 있다. 고유가가 야기한 미국채 금리 상승이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Shelter)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6% 수준이다. 모기지 금리 상승은 높은 물가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보수적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발언도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리사 쿡 연준이사는 이란 전쟁이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균형 상태로 보이지만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유가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CME FedWatch의 금리 전망엔 전쟁 전인 2월 27일에 없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다음주에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 측에 15개 조항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핵시설 해체, 우라늄 농축 금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 등이 합의안 속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상군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일부 언론에선 중동에 정예 지상군 파병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 S&P 500 GICs 기준 상승섹터는 에너지(+6.2%), 소재(+4.2%), 유틸리티(+2.9%), 필수소비재(+1.2%) 등이다. 에너지는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상승한 유가가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소재는 인플레이션의 반등 기대 덕분에 올랐다. 지난주 가장 약했던 유틸리티는 방어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상승했다. 하락상위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7.2%), 정보기술(-3.5%) 등이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와 비(非)-M7으로 구성된 ETF(XMAG)의 수익률은 각각 -5%, -1% 등이다. 빅테크 중심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M7은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AAPL +0.3%, TSLA -1.7%, AMZN -2.9%, NVDA -3%, MSFT -6.6%, GOOGL -8.9%, META -11.4%).
- 메타와 알파벳이 가장 큰 폭 하락한 이유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다. 미국 법원은 소셜미디어가 아동들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원고는 게시물이 아닌 플랫폼이 중독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문제 삼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원고인 20대 여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약 600만 달러로 실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로 부과됐다. 메타와 유튜브는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는 청소년 정신 건강의 문제는 플랫폼 외 다양한 이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측은 회사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가 아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며 책임 범위 축소를 주장했다.

### ≫ 이번 주(3월 30일~4월 3일) 프리뷰: 주요 인사들은 연설, ISM 제조업 PMI, 고용지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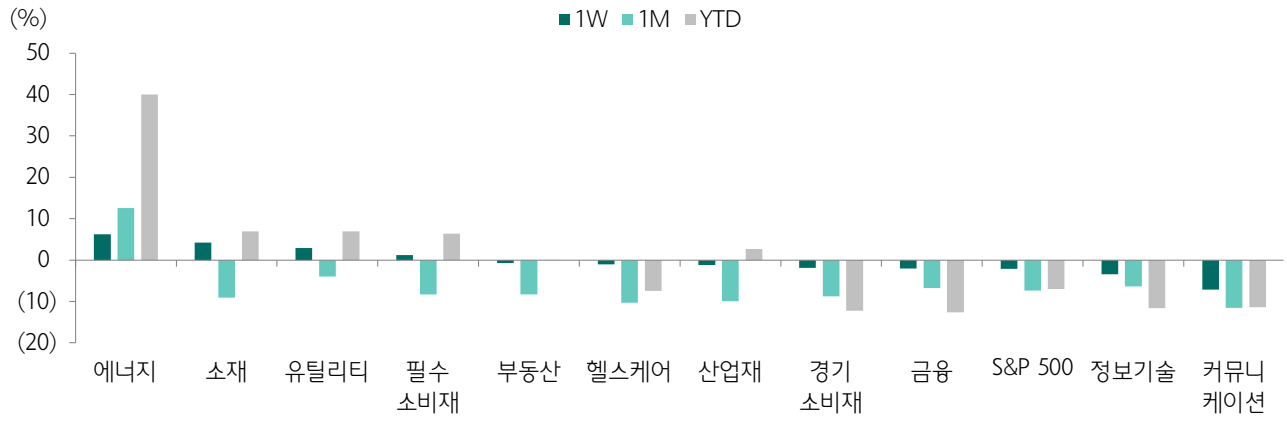
- 이번 주에도 시장참여자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지정학적 위기의 장기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처럼 물가가 다시 오를 여지가 있다. 올해 시장참여자들은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했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증시 참여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전쟁의 향방을, 통화정책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연준의 현재 인식 및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려 할 것이다.
- 지정학적 위기 속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쟁은 곧 멈출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주변 걸프국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참전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후티는 이란의 중동 내 대리세력 '저항의 축'의 일원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6주차가 되는 4월 6일까지 이란의 주요 전력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매체는 4월 9일을 전쟁 종식 잠재 시점으로 언급했다. 지상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으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상군 직접 투입은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장기전으로 번지거나 미군의 희생이 커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상원의원들 앞에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민주당이 자신을 다시 탄핵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간선거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반대하는 시위도 있다. 강경 지지층과 반대층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유동표다.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이번 전쟁의 성과를 통한 당위성을 보여줘야 한다. 전쟁이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언론과 달리 이란과의 협상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의도대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 발표가 예정된 연준 인사는 파월 연준의장, 윌리암스 뉴욕 연은 총재,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바 연준 부의장, 보우먼 연준이사, 로건 달라스 연은 총재 등이 있다.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를 제외하고 모두 올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하버드대 경제학 원론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과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 변화 여부를 시장참여자들은 주시할 것이다. 최근 미 연방검찰은 파월 연준의장 수사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파월 의장은 차기 연준 의장이 비준되기 전까지 직무를 대리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참여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친화적인 캐빈 워시 연준의장 후보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인준 불확실성이 발생한 상황이다.
-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발표될 예정이다. 확장국면에 있지만 하위 지수 중 가격지수가 높은 것은 불편한 상황이다. 물가 및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의 가격지수에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할 여지가 있다.
-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는 현지시각 31일 미국채 3년물 및 6년물 입찰 / 3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예상치 54.7, 이전치 57.7) /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예상치 88, 이전치 91.2) / JOLTS 구인 이직건수(예상치 6,900,000 건, 이전치 6,946,000 건), 4월 1일 3월 ADP 비농업 고용 변화(예상치 42,000 건, 이전치 63,000건) / 2월 소매판매(MoM, 예상치 +0.4%, 이전치 -0.2%) / 2월 핵심 소매판매(MoM, 예상치 +0.3%, 이전치 변동 없음) / 3월 S&P 500 글로벌 제조업 PMI(예상치 52.4, 이전치 52.4) / 3월 ISM 제조업 PMI(예상치 52.3, 이전치 52.4), 2일 1분기 애틀랜트 연은 GDPNoW(예상치 +2.0%, 이전치 +2.0%) / 주간실업수당 청구건수(예상치 212,000 건, 이전치 210,000 건) / 2월 미국 수입 및 수출, 3일 3월 실업률(예상치 4.4%, 이전치 4.4%) / 3월 비농업고용(예상치 56,000 건, 이전치 - 92,000건) / 3월 평균 시간당 임금(MoM, 예상치 0.3%, 이전치 0.4%)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30일 트럼프 대통령 / 파월 연준의장(중립, 투표권 있음), 31일 윌리암스 뉴욕 연은 총재(다소 비둘기, 투표권 있음), 4월 1일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중립, 투표권 없음) / 바 연준 부의장(중립, 투표권 있음) / 보우먼 연준이사(비둘기, 투표권 있음), 3일 로건 달라스 연은 총재(매파, 투표권 있음)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30일 PRGS, 31일 NKE / MKC / FDS / TE, 4월 1일 CAG / LW, 2일 AYI 등이 있다.
- 4월 3일은 성 금요일(Good Friday)로 미국증시는 휴장이다.

## 주요 지표 및 수익률

| 지수명 | 상장 국가 | 종가 (03/27) | 수익률(%) | | | | | | |
|---|---|---|---|---|---|---|---|---|---|
| | | | 1D | 1W | 1M | 3M | 6M | 1Y | YTD |
| S&P 500 | 미국 | 6,368.9 | -1.7 | -2.1 | -7.4 | -7.6 | -4.8 | 14.1 | -7.0 |
| 나스닥 | 미국 | 20,948.4 | -2.1 | -3.2 | -7.6 | -10.6 | -7.6 | 20.9 | -9.9 |
| 다우 | 미국 | 45,166.6 | -1.7 | -0.9 | -7.8 | -6.6 | -2.7 | 8.6 | -6.0 |
| STOXX600 | 유럽 | 575.3 | -1.0 | 0.4 | -9.2 | -2.9 | 3.1 | 6.1 | -2.9 |
| KOSPI | 한국 | 5,269.6 | -3.1 | -2.5 | -15.6 | 25.0 | 53.9 | 106.0 | 25.0 |
| KOSDAQ | 한국 | 1,107.1 | -3.0 | 0.9 | -7.2 | 19.6 | 31.5 | 59.6 | 19.6 |
| 상해종합지수 | 중국 | 3,889.4 | -0.6 | 2.0 | -6.6 | -1.9 | 0.2 | 16.1 | -2.0 |
| 심천종합지수 | 중국 | 2,561.4 | -0.7 | 3.3 | -7.3 | 0.9 | 1.7 | 26.4 | 1.2 |
| 항셍테크지수 | 홍콩 | 24,569.0 | -1.5 | 0.8 | -7.7 | -5.0 | -8.5 | 4.9 | -4.1 |
| TOPIX | 일본 | 3,504.6 | -4.0 | 0.5 | -11.0 | 2.8 | 11.7 | 27.1 | 2.8 |
| 니케이 225 | 일본 | 50,987.6 | -4.5 | -1.0 | -13.4 | 1.3 | 13.5 | 37.4 | 1.3 |
| 니프티 50 | 인도 | 22,819.6 | -2.1 | -0.8 | -9.4 | -12.0 | -7.3 | -3.0 | -12.7 |
| Vietnam | 베트남 | 1,672.8 | 1.7 | 1.5 | -11.0 | -5.3 | 0.7 | 27.0 | -6.3 |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3.2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유발한 유가 상승이 긍정적 모멘텀
- 소재: 인플레이션 상승 수혜 기대
- 유틸리티: 지난주 가장 부진해 반발 매수세 유입. 시장 변동성 커지며 방어적 성격 부각

##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커뮤니케이션: 알파벳과 메타의 패소.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지수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

**금주의 주요 이슈**

| 날짜 | 주요내용 |
|---|---|
| 3/24 | **트럼프, 이란과 협상 시한 '5일' 제시…긴장 완화 시도**<br>•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협상 시한을 5일로 설정했으며 더 빠른 타결 가능성도 언급. 최근 중동 특사 등을 통해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히며 이란이 합의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 동시에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5일간 유예하며 협상 여지 확보, 시장에서는 긴장 완화 신호로 해석. |
| 3/25 | **미국 3월 PMI, 서비스 둔화·제조 개선**<br>• 미국 3월 서비스업 PMI는 51.1로 전월 대비 하락하며 11개월래 최저 기록, 제조업 PMI는 52.4로 예상치 상회하며 개선. 중동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병목이 발생하며 투입 비용과 판매가격 상승률이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확대. 시장에서는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제기. |
| 3/25 | **클래리티법 수정에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 우려, 가상자산 급락**<br>• 미 의회 '클래리티법'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유사 보상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며 가상자산 시장 급락. 서클 주가는 장중 최대 18% 하락했고 코인베이스도 동반 약세. 이자 지급 및 패스스루 구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에 스테이블코인의 저축 기능 확장 제한 우려 부각. 은행권은 예금 유출 방지를 이유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 확대. |
| 3/25 | **구글 '터보 퀀트' 공개 후 AI 메모리 수요 논쟁 촉발**<br>• 구글이 AI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데이터 압축 기술 '터보 퀀트'를 공개. 터보퀀트는 AI 모델의 핵심 병목인 KV 캐시를 3비트 수준으로 압축하면서 정확도를 유지,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배 감소시키고 H100 기준 최대 8배 성능 향상 구현. 이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로 반도체주 약세. SNDK -5.7%, MU -3%, WDC -4.7%, STX -4% 하락하며 기술주 강세 속에서도 역행. 다만 효율 개선이 오히려 AI 활용 확산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 |
| 3/27 | **미국 FCC, 구리 통신망→광섬유 전환 규제 완화**<br>•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통신·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구리 통신망 교체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의결.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허가 절차를 통해 구리 기반 네트워크를 광섬유로 전환 가능. 이번 조치로 통신사들은 향후 10년간 약 100만 미터톤의 구리 회수 및 매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 수준의 자금 확보 기대. 다만 광섬유 전환은 통신 영역에 국한되며, 전력망·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전기차 등 산업에서의 구리 수요는 지속될 전망. |
| 3/27 | **메타, 텍사스 AI 데이터센터 투자 100억 달러로 확대**<br>• 메타, 텍사스 엘패소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약 6배 확대. 해당 시설은 2028년 가동 목표로 1GW 전력 용량 확보 계획. 메타는 올해 CAPEX 가이던스를 최대 1,350억 달러로 제시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 다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클라우드 사업 부재로 투자 회수 구조에 대한 우려 존재. |
| 3/28 | **미국 3월 소비자심리지수 3개월 만 최저**<br>• 미국 미시간대 3월 소비자심리지수 53.3 기록하며 전월(56.6) 대비 5.8% 하락,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 현재 경제 상황 지수 55.8, 소비자 기대 지수 51.7로 모두 부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 전월(3.4%) 대비 상승하며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상승폭 기록,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소폭 하락. 이란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소비심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 특히 중산층·고소득층 및 주식 보유자 중심으로 심리 위축 두드러짐. 단기 경제 전망(-14%)과 향후 1년 재정 기대(-10%)도 크게 하락하며 경기 둔화 우려 반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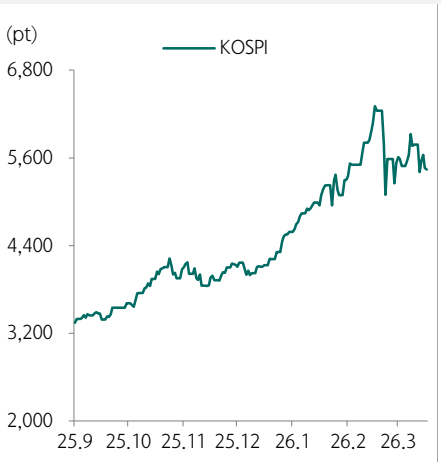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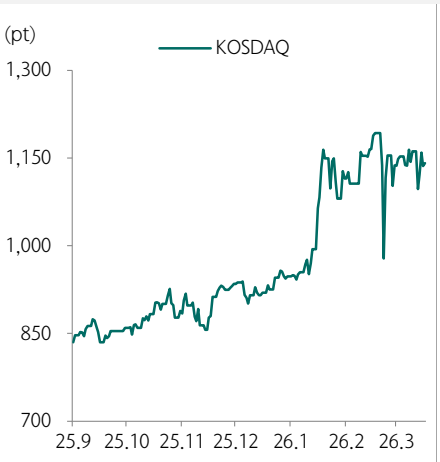
| 월 | 화 | 수 | 목 | 금 |
|---|---|---|---|---|
| **30** | **31** | **1** | **2** | **3** |
| PRGS | NKE MKC FDS TE | CAG LW | AYI | |
| **6** | **7** | **8** | **9** | **10** |
| | | DAL STZ | | BLK |
| **13** | **14** | **15** | **16** | **17** |
| GS | JPM JNJ WFC C KMX | ASML BAC MS | NFLX BX FCX | PG |
| **20** | **21** | **22** | **23** | **24** |
| SCHW | GE UNH VZ ISRG LMT DHR NOC UAL | PM GEV IBM T CME KMI ELV | AMZN MA CAT INTC MCD AXP KLAC HON NEM WDC FSLR AAL | XOM CVX ABBV |
| **27** | **28** | **29** | **30** | |
| KO CDNS AMP | GOOGL MSFT TSLA V RTX PEP NEE TXN | META LRCX AMGN TMO BA NOW EQIX STX AMT F CMG | AAPL LLY MRK LIN COP SHOP BMY PH HWM PWR REGN RC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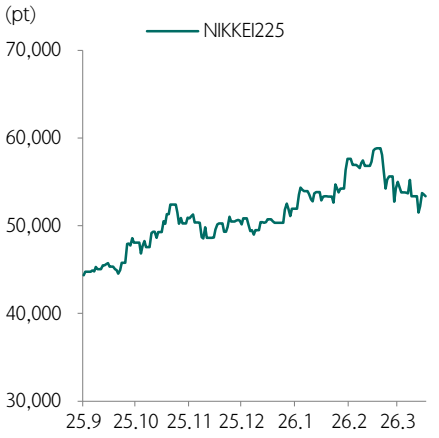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 | |
|---|---|
| **3/30(월)** | •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
| **3/31(화)** | ** 미·중 정상회담(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중)(~4/2)<br>•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이전치 6.946M)<br>• 3월 CB 소비자신뢰지수 (이전치 91.2) |
| **4/1(수)** | • 3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이전치 52.4)<br>• 2월 ISM 소매판매 MoM (이전치 -0.2%)<br>• 3월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이전치 63k) |
| **4/2(목)** | •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
| **4/3(금)**<br>휴장<br>-성금요일(부활절) | • 3월 비농업고용지수 (이전치 -92k)<br>• 3월 시간당 평균 임금 MoM (이전치 0.4%)<br>• 3월 실업률 (이전치 4.4%)<br>• ISM 비제조업구매자지수 (이전치 56.1)<br>•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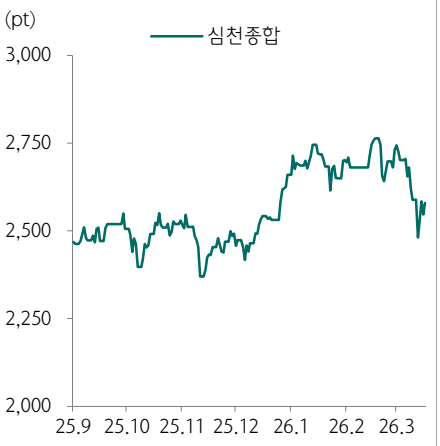
##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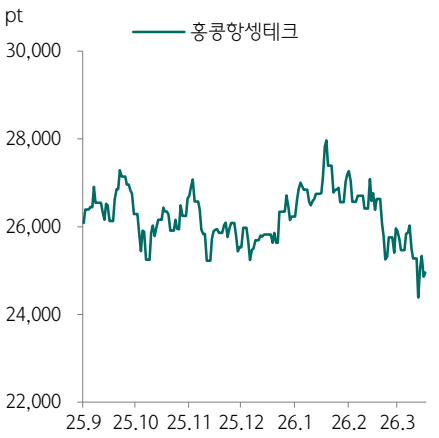

(pt)
KOSPI
6,800
5,600
4,400
3,20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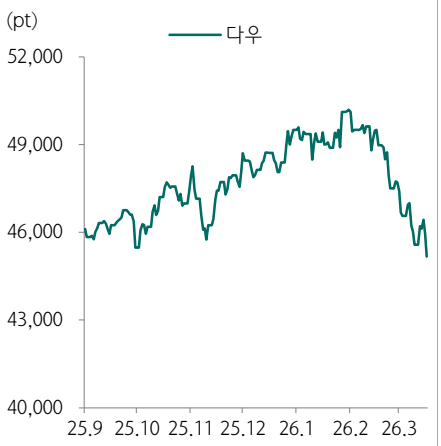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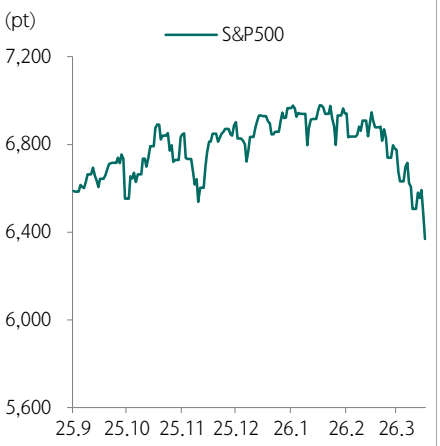

(pt)
NIKKEI225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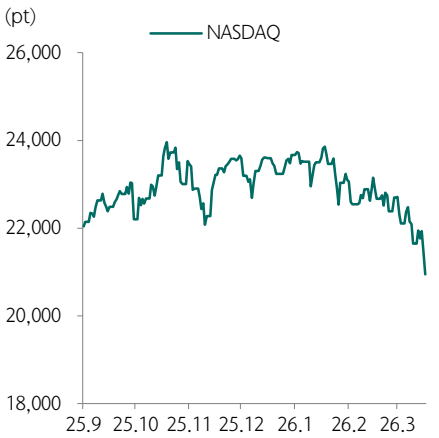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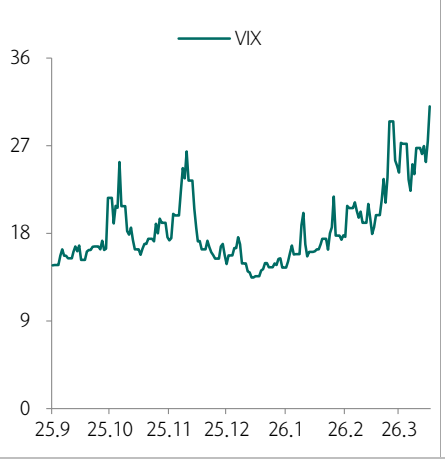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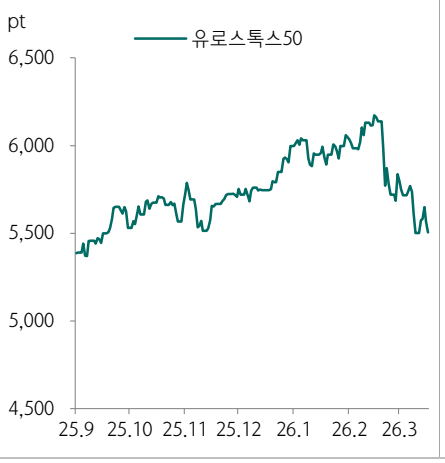

pt
홍콩항셍테크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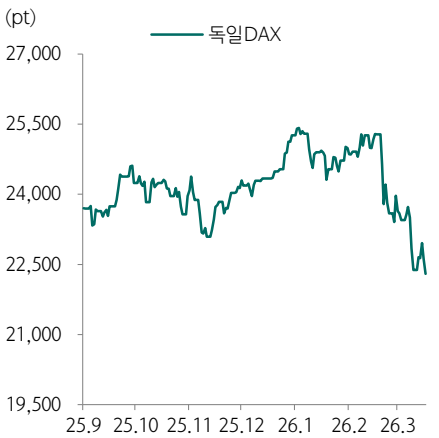

(pt)
다우
52,000
49,000
46,000
43,000
40,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pt)
S&P500
7,200
6,800
6,400
6,000
5,6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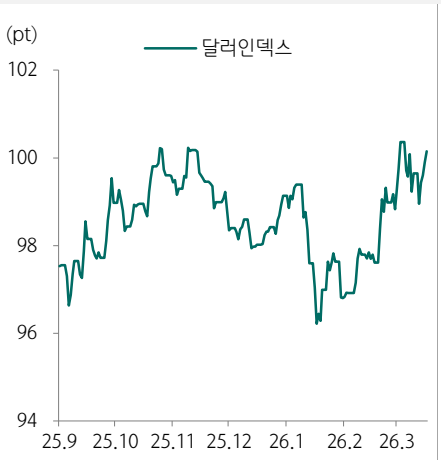

(pt)
NASDAQ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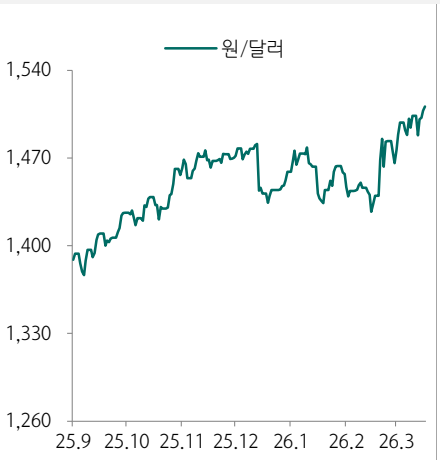

VIX
36
27
18
9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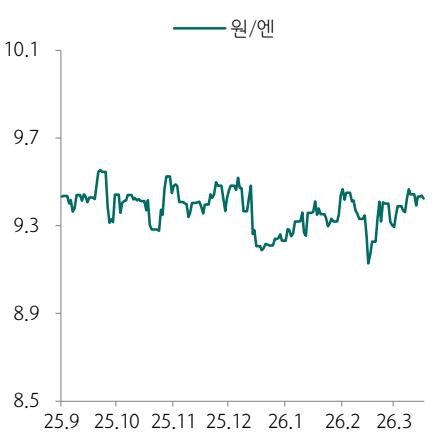

pt
유로스톡스50
6,500
6,000
5,500
5,000
4,5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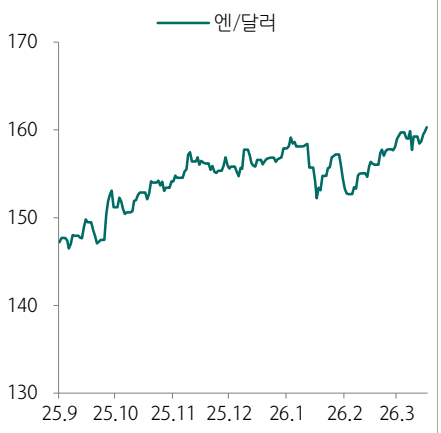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19,5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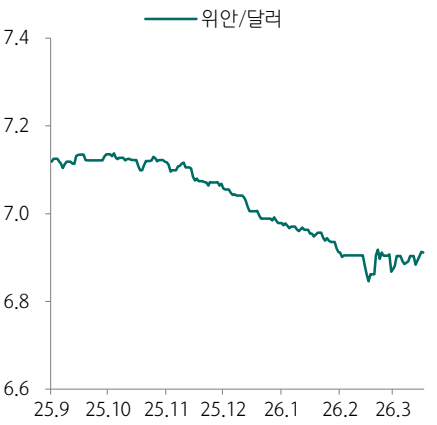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2
100
98
96
9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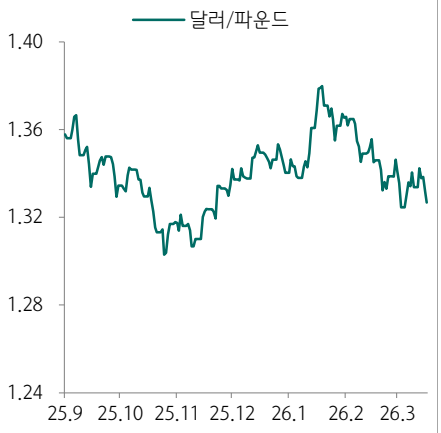

원/달러
1,540
1,470
1,400
1,330
1,26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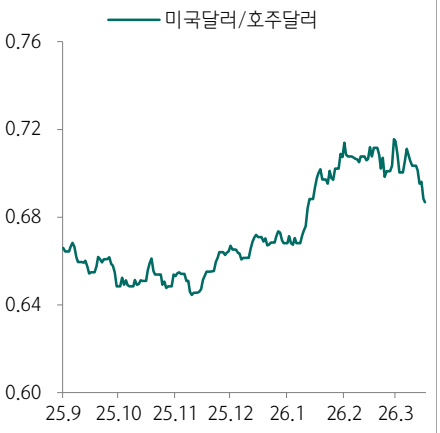

원/엔
10.1
9.7
9.3
8.9
8.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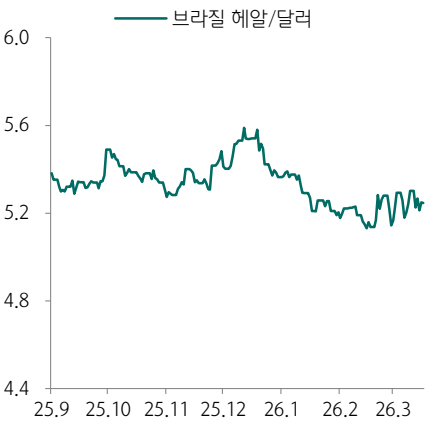

엔/달러
170
160
150
140
13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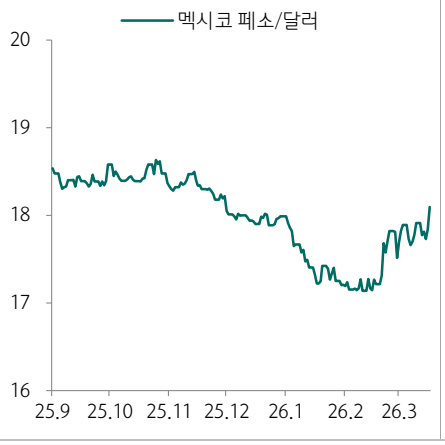
달러/유로
1.23
1.20
1.17
1.14
1.11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위안/달러
7.4
7.2
7.0
6.8
6.6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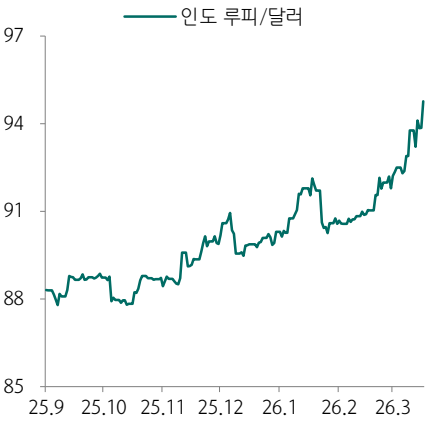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1.2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미국달러/호주달러
0.76
0.72
0.68
0.64
0.6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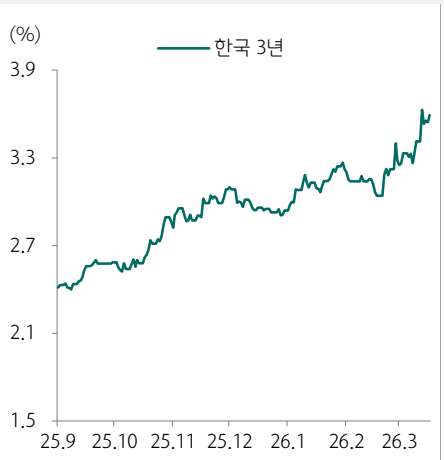

브라질 헤알/달러
6.0
5.6
5.2
4.8
4.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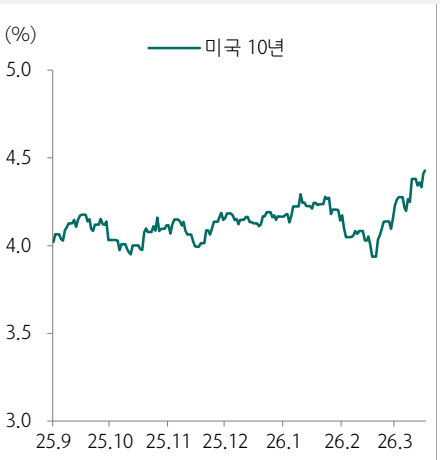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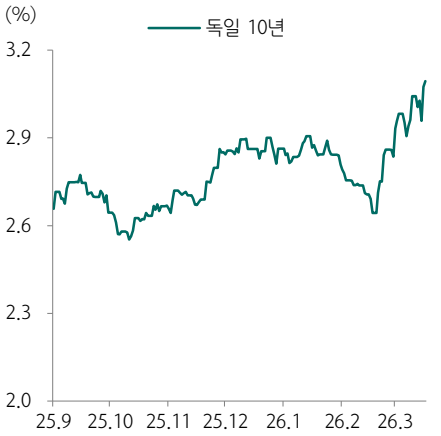
러시아 루블/달러
90
84
78
72
66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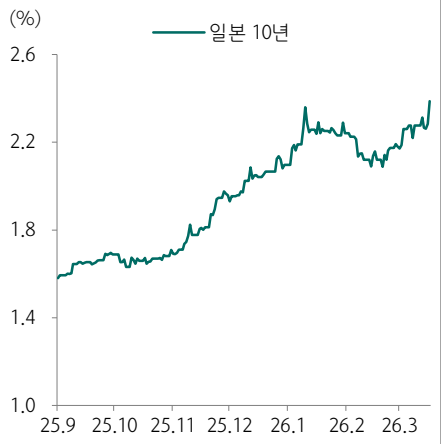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97
94
91
88
8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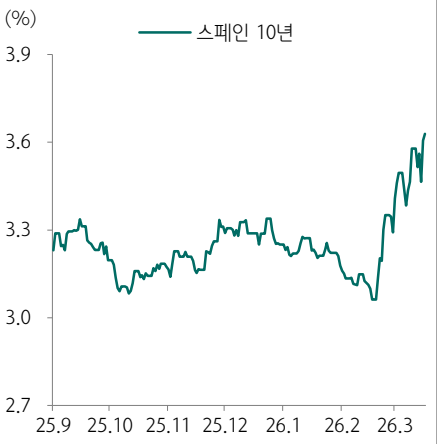
##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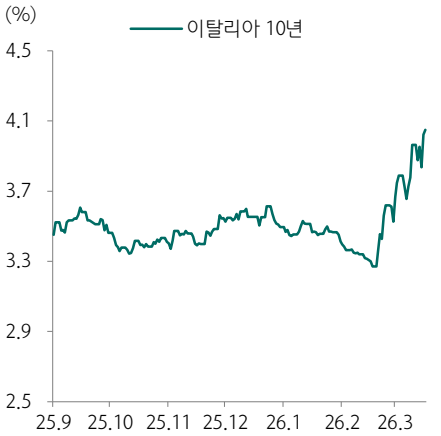

(%)
한국 3년
3.9
3.3
2.7
2.1
1.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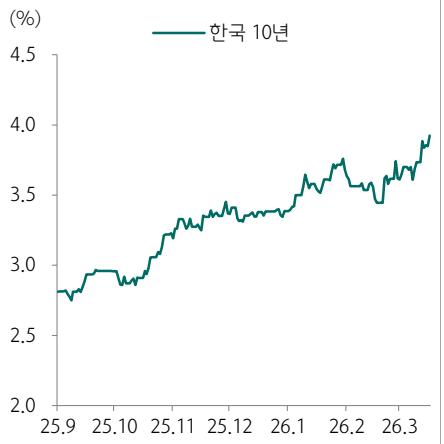

(%)
미국 10년
5.0
4.5
4.0
3.5
3.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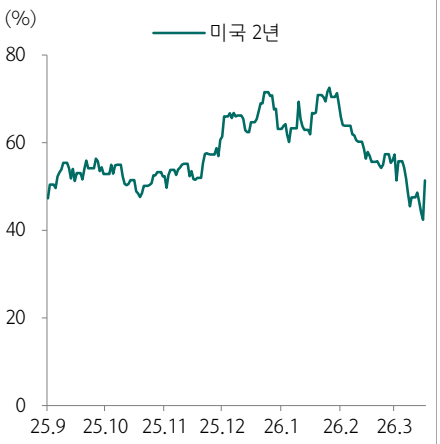

(%)
독일 10년
3.2
2.9
2.6
2.3
2.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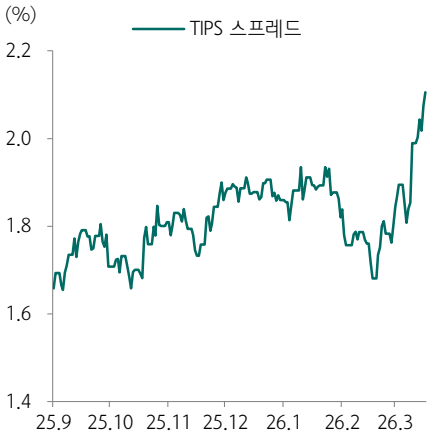

(%)
일본 10년
2.6
2.2
1.8
1.4
1.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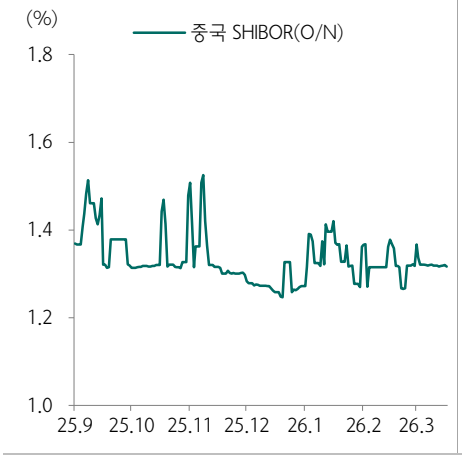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3.9
3.6
3.3
3.0
2.7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이탈리아 10년
4.5
4.1
3.7
3.3
2.9
2.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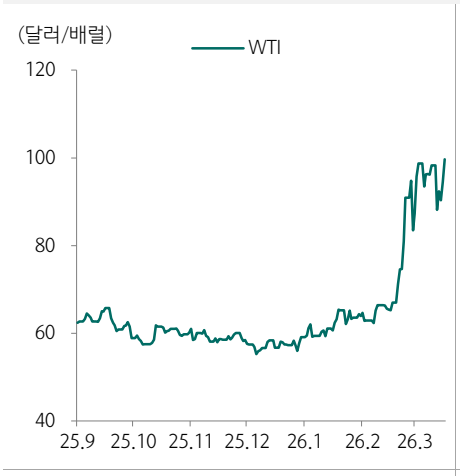

(%)
한국 10년
4.5
4.0
3.5
3.0
2.5
2.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미국 2년
80
60
40
20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TIPS 스프레드
2.2
2.0
1.8
1.6
1.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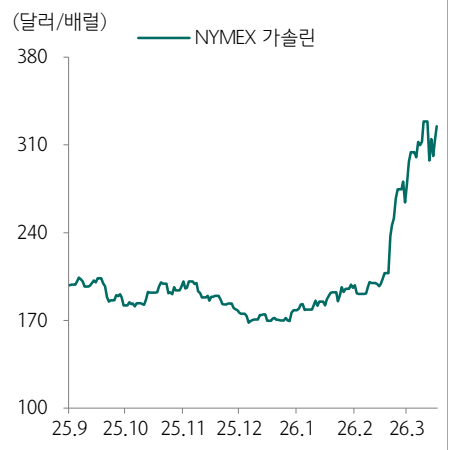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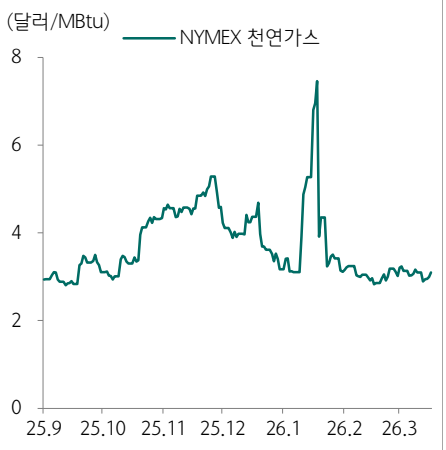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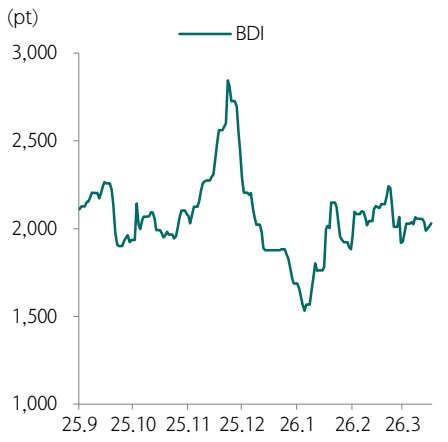

(달러/배럴)
WTI
120
100
80
6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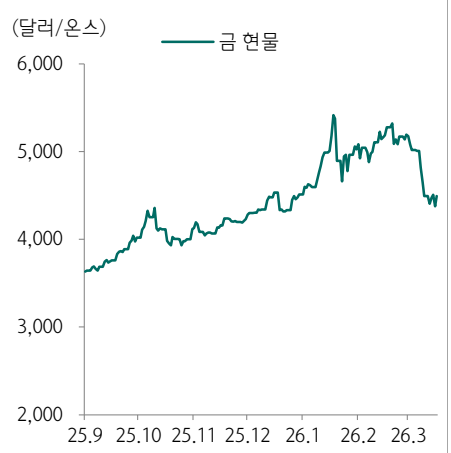
(달러/배럴)
브렌트유
120
100
80
6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배럴)
두바이유
130
100
7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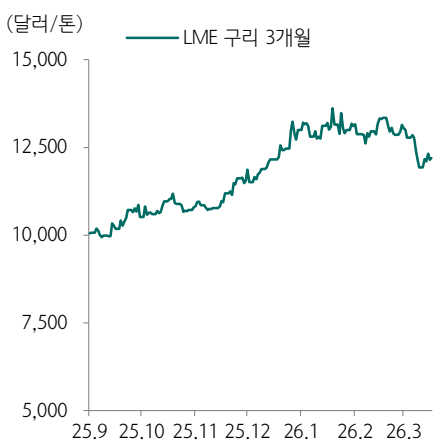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380
310
240
170
1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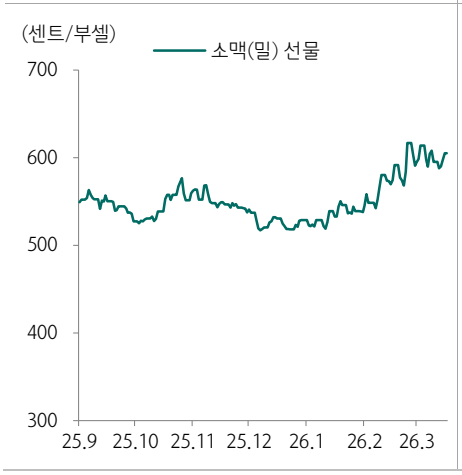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8
6
4
2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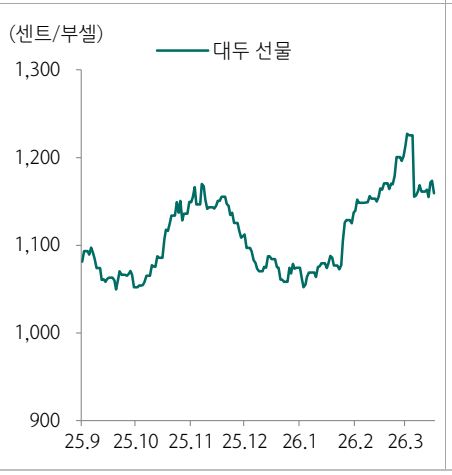

(pt)
BDI
3,000
2,500
2,000
1,500
1,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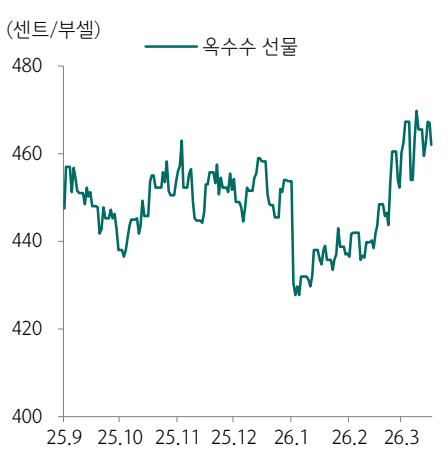

(달러/온스)
금 현물
6,000
5,000
4,000
3,00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온스)
은 현물
160
120
80
40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15,000
12,500
10,000
7,500
5,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700
600
500
400
3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대두 선물
1,300
1,200
1,100
1,000
9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480
460
440
420
4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3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